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4년 2월 21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인 윤일환
디자인/제작 비온후 (051-645-4115 / beonwhobook@naver.com)

학사 일정

2.21(금)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3.3(월)	개강입학식
3.3(월) - 7(금)	수강정정
3.17(월)	확정출석부 배부
3.17(월) - 21(금)	2013학년도 후기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3.21(금)	2013학년도 후기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4.8(화)	2013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4.21(월) - 25(금)	증간고사
5.15(목)	개교기념일
5.20(화) - 22(목)	여름 계절수업 수강신청
6.16(월) - 20(금)	기말고사
6.21(토)	하기휴가

부산대,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 우수 인증대학 선정

우리 대학교가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서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월 23일(목),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부산대를 신규 인증대학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 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2011년에 최초로 도입됐으며,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부산대는 이번 평가결과 발표에서 유학생 학습컨설팅 및 취업지원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부산대는 유학생의 학업지원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학사경고자 상담제를 운영해 1대1 성적 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취업관리를 위해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컨설팅, 단기방학 인턴십 실시 등을 통해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문대학은 8개국 20여개 기관과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데, 2013학년도 기준으로 해외파견 200여명, 국내초청 30여명, 외국인 유학생 3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Contents

인문대학 취업 특강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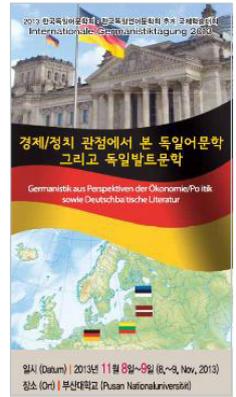
우리 대학에서는 전문 강사 초청 취업특강을 통하여 졸업준비생들의 체계적인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인문대학 취업특강을 개최하였다. 2013년 11월 28일(목) 개최된 특강에서는 한진중공업 인재개발원 김강호 원장이 인문관 시습관에 꽂 들어찬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인사담당에게 듣는 기업의 원하는 인재상, 한방에 통하는 면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을 하였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성공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좁아진 인문학 분야의 취업문 속에서 새로운 취업의 가능성을 개척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특강과 별개로 인문대학 12개 전 학과에서는 11월~2월까지 동문선배 초청 취업강연회, 기업체 탐방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독어독문학과 주관 대규모 학술행사:
한국독일어문학회·한국독일언어문학회
공동주최의 2013 추계 국제학술대회
— 독일 및 발트해 연안국 학자들과의
흥미로운 토론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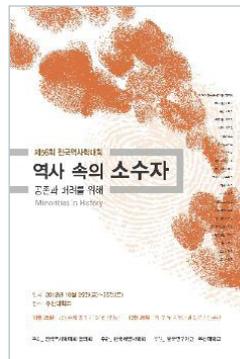


독일어문학과 독일발트문학 관련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문학의 경제·정치적인 면면을 고찰해보는 뜻 깊은 국제학술대회가 우리 대학 교에서 개최되었다. 11월 8일(금)~9일(토) 이틀간 학내 분관 3층에서 “경제/정치 관점에서 본 독일어문학 그리고 독일발트문학”이라는 타이틀로 독일은 물론 이례적으로 발트3국의 독일발트문학 전문가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독어독문학과 인성기 교수는 “탈영토화/재영토화의 거대도시 공간-2010년도 루르 문화수도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김중수 교수도 “경제 담화 속의 은유”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학회는 한국독일어문학회와 한국독일언어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로, 우리 대학 독어독문학과와 사범대 독어교육과가 주관하였다. 한국인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발트3국’은 러시아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발트해와 맞닿아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가리킨다. 유럽연합(EU)의 신생 회원국으로서 오늘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13세기 이래 독일어 영향권에 속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형성해 온 독일발트문학을 소개함으로써 독일어문학의 외연 확대가 기대된다.



사학과 주관 대규모 학술행사: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 개최



2013년 10월 25일(금)~26일(토) 한국서양사학회 주관, 부산대학교 후원으로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역사학대회는 국내 역사학계의 최대 연례행사로 이번 전국역사학대회는 ‘서울권’에서 벗어나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행사이기에 특히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역사학대회가 청주와 대전에서 개최된 적은 있지만 수도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외된 지방’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역사속의 소수자—공존과 배려를 위해”라는 주제로 역사학회, 동양사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등 20개 역사관련 학회의 학자들이 논문 102편을 발표했다. 우리 삶 속에서 소외된 ‘소수자’에 대해 조명하며 논문의 소재는 여성, 기생, 과부, 서자, 흑인 노예, 이주자, 동성애자, 노인, 환관, 장애인, 탈북 청소년 등으로 다양하다. 역사 속에서 그들이 처했던 인권과 복지의 보편적, 개별적 측면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차섭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의장(현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은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지 못하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학술발표의 주제에 대해 “소수자에 대한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인권과 자유를 실현할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역사 속 소수자들이 처했던 인권과 복지 상황을 살펴봄으로



써 최근 한국사회의 화두인 인권과 복지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틀간 개최된 역사학 대회는 첫날 부산대 10·16 기념관에서 공동주제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3국을 포함, 유럽과 이슬람 문화권의 소수자들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둘째 날에는 19개 학회와 연구소가 독자적인 패널을 구성해 다양한 차원의 검토를 했는데, 인문관의 각 강의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 학회와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 학자들과 교사, 학생, 일반시민이 참여해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2013학년도 제2차 학과단위 해외파견사업 선발



2013학년도 제2차 학과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에 우리 대학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가 선발되었다. 학과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은 각 학과가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학술교류협정체결대학과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기획·운영하는 학생파견 프로그램으로서, 중어중문학과는 201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및 2014학년도 1학기에 중국 상해교통대학에 총 32명의 학생을 파견하고, 독어독문학과는 2014학년도 1학기에 독일 아헨대학에 10명의 학생을 파견하게 된다. 한편, 2013년 여름계절학기 및 2학기에는 걸쳐 시행된 제1차 해외파견 사업에는 중어중문학과(상해교통대학 2명, 산둥대학 26명), 불어불문학과(프랑쉬뮈페대학 15명), 독어독문학과(하노버대학 2명, 밤베르크대학 3명), 노어노문학과(러시아 카잔연방대학 6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파견을 다녀왔다.

왼손과 왼쪽을 위한 변명

김종수

나는 처음부터 완벽한 바른손잡이(?)다. 지금까지 편해서 그랬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오른손과 오른발을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가 하고 더러 걱정 아닌 걱정을 하기도 한다. 어릴 적에는 간혹 왼손잡이 친구들을 보면 신기해하면서도 왜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고 불편한 왼손을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순전히 내 입장에서 바라본 편견임은 훨씬 나중에 알았지만.

내 가족 모두는 철저히 오른손잡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둘째 아들이 애초부터 왼발잡이인 것이다. 손은 분명 오른손잡이가 맞는데, 공을 차거나 할 때면 왼발을 사용한다. 아들은 왼발을 사용해야 편하고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 나는 둘째가 왼발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불편해보여 오른발을 사용해야 강하게 공을 칠 수 있다고 시범까지 보이며 바꾸려고 했다.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오른발잡이인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리 엇박자가 나니 마뜩찮았던 것이다. 같이 운동을 할 때면 가끔씩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럴 수가 없었다. 아들은 왼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강하고 능수능란하게 공을 차니 할 말을 잃은 것이다. 그래도 아들이 가급적 오른발잡이로 자라나길 원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울흔-’는 ‘옳다’, ‘외다’는 ‘그르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 원초적인 의미에서 보듯 ‘오른’은 바른 것, ‘왼’은 틀린 것으로 분화되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서양언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라틴어 형용사 dexter에는 ‘오른쪽’ 외에도 ‘자비로운’, ‘호의적인’ 뜻이 들어 있고, sinister에는 ‘왼쪽’ 외에도 ‘서툰’, ‘불길한’, ‘야비한’, ‘적대적인’ 뜻이 담겨 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영어 right, 독일어 recht, 프랑스어 droit 등도 어원적으로 보면 ‘옳고, 정당하며, 정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왼쪽을 가리키는 영어 left, 독일어 link, 프랑스어 gauche 등은 ‘틀린, 나쁜, 비정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오른손은 ‘옳은 손’이고 ‘바른 손’이며 ‘좋은 손’인 반면, 왼손은 ‘틀린 손’이고 ‘그른 손’이며 ‘나쁜 손’이다.

이러한 언어적 차별은 분명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단어의 내재적 의미보다 관습적 의미가 큰 힘을 발휘한다. 지금까지 오른쪽이 언제나 참이나 정상과 동의어인 것은 모든 좋은 행동이 오른손에 의해 행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왼쪽이 거짓이나 비정상과 동의어인 것은 몸의 왼쪽에 있는 손이 사회의 모든 금기와 불안들을 결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른쪽과 왼쪽을 바라보는 극단적인 시선은 생활 속에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오른쪽은 정상, 규범, 표준이며 오른손은 정당한 일에 사용되었다. 왼쪽은 이단, 비정상, 변칙, 일탈이며 왼손은 좋지 못하고 불결한 일에 사용되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관모(冠帽)나 머리를 만질 때 오른손을 사용했고, 소변을 볼 때나 신발을 고쳐 신을 때는 왼손을 사용했다. 밥 먹는 손, 글 쓰는 손, 악수하는 손이 응당 오른손인 것은 왼손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금기 및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좌우를 명확히 가르고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에 입각한 기독교 문명에서도 오른쪽은 좋은 쪽, 선한 쪽, 정의를 나타내고, 왼쪽은 나쁜 쪽, 악한 쪽, 불의를 나타낸다. 로마법에서 맹세와 선서는 오른손으로 하도록 규정했고, 선악과를 따는 이브의 손은 왼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오른쪽에는 선한 도둑이, 왼쪽에는 악한 도둑이 자리한다. 최후의 심판에서 의로운 자를 상징하는 어린 양은 오른쪽에, 악한 자를 상징하는 염소는 왼쪽에 배치되어 있다. 인도와 이슬람 문화권도 다를 바가 없다. 오른쪽은 정(正)의 방향이자 정상 방향이고, 왼쪽은 부정(不正)의 방향이자 비정상의 방향이다. 오른쪽은 성(聖)이고, 왼쪽은 속(俗)이 되는 것이다. 식사는 오른손으로, 용변은 왼손으로 하는 것이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의식중에 '라이트(right, 右)'는 옳고 곧으며(善), '레프트(left, 左)'는 그르고 굵은 것(惡)이라는 일도양단식의 가치관이 의식을 지배한다. 우리의 이념지도 스펙트럼은 극좌, 극우, 좌파, 우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온건좌파, 온건우파, 뉴라이트, 수구꼴통, 좌빨에 이르기까지 현란하기 그지없다. 분단 상황은 '보수, 우익=반공', '진보, 좌익=친공'이라는 반공 규율 이데올로기를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양산하여 '우상의 황혼'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

인간 사회는 진정 어느 한쪽을 편들게 되어 있는가? 무차별적인 편향과 극단적인 편 가르기와 패거리 문화를 뛰어 넘는 좌우균형과 병존의 문화는 요원한가? 오른손 무한권력의 시대로 대변되는 절반의 문화사에 단지 겹고, 절름발이에 불과한 비대칭적 모순을 뛰어넘어 따로 있되 늘 함께 하는 불이(不二)를 꿈꿀 순 없을 까? 좌와 우, 남과 북, 남성과 여성, 중앙과 지방, 개발과 보존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을 가로지르는 변증의 지평은 없을 까?

갑오년 새해에는 몸의 균형 못지않게 의식의 균형,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을 자주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동안 소홀했던 왼손으로 양치질도 하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아이들이랑 공을 힘차게 차야겠다. 원발로!



필자 :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사회언어학 전공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는 2013년 10월 12일(토) 부산대학교가 개최한 제15회 전국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을 주관하였다. 97개 고등학교 302명(산문 156명, 운문 146명)이 참가한 이번 백일장은 엄격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17명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이번 백일장의 글제는 “그늘”(운문)과 “역”(산문)이었으며, 장원은 경기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전수현 학생이 수상하였다. 국어국문학과 학술제가 11월 30일(토) 열렸다. 학술제는 본 과의 학술동아리 3개 분과의 논문발표로 꾸며졌다. 고전문학연구회의 논문 「규방가사의 전통 양식과 그 현대적 계승」, 귀성문학연구회의 논문 「현대 괴담의 새로운 양상 분석」, 배말말연구회의 논문 「'이다'에 대하여—국어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논문 발표 후 국어국문학과 졸업동문의 취업특강이 이어져 학생들이 졸업 이후 진로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매학기 국어국문학과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주)미래와 도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2월 5일(목) 감사패를 증정하는 행사가 있었다. ‘(주)미래와 도전’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5명과 국어국문학과 교수 7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에서 지원하는 ‘학과/대학단위 학생파견사업’에 정규/계절학기 모두 선정되어 동계 계절학과와 2014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에 학과학생 및 중문과 부·복수전공 학생들이 상해교통대학으로 파견한다. 동계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은 모두 26명으로 1월 5일(일) 출국(남덕현 교수 인솔)하여 1월 26일(일) 귀국했다. 2014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은 모두 6명으로 2014년 2월 24일(월)~6월 27일(금)까지 상해교통대학에서 수학하게 된다.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에서는 11월 14일(목) 경주 감은사지→이건대→계림 일정으로 학생 답사를 다녀왔다. 경주 일대를 둘러보며 일본과 관련된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탐방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12월에는 일본 대마도에서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세미나 및 일어일문학회를 개최하였는데, 옛 조선과 일본 대마도의 교류 등의 역사를 공부하며 학문적으로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는 11월 2일(토) 가을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영어학전공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전공교수들과 함께 승학산일대로, 학부 재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금정산일대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또한 11월 22일(금)에는 학부 재학생들과 전공교수들 그리고 동문들을 초청하여 영문인의 밤 행사를 마련했다. 영어영문학과 2013년 전기 논문 본 발표회가 전공별로 열렸는데(영어학[10월 21일], 영문학



[10월 25일, 번역학(11월 1일)], 박사 4명, 석사 19명의 전공자들이 교수들, 재학생 및 신입생들과 함께 자신의 졸업 논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에서 주최한 “불문인의 밤” 행사가 11월 24일(일) <전람회 그림>에서 열렸는데, 동문 및 재학생, 학과 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은 11월 1일(금)~2일(토) 1박2일의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수학여행은 2년마다 있는 학과행사로서 이번에는 동영 동피랑 마을, 남해 독일마을, 남해 금산 보리암, 원예 예술촌을 돌아보았다. 25명의 학생들과 함께 객원교수, 외국인 시간강사, 전임대우강사도 참석하였다. 독어독문학과는 매년 11월 소위 ‘홀카밍데이’라고 할 수 있는 독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11월 16일(토) 오마이랜드에서 열린 이 행사는 재학생들의 공연과 졸업생 소개에 이어 재학생과 졸업생의 간담회로 마련되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독일의 최대 명절인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절 축제(Weihnachtsfest)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독일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12월 20일(금) 개최된 이번 성탄절 축제는 ‘다함께 독일노래 부르기’로 시작되어 독일 관련 퀴즈 맞추기 게임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학기를 끝으로 독일로 돌아가는 외국인 시간강사 슈테파니 베른슈타인(Stephanie Bernstein)의 송별회도 겸했다.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김세환(08학번), 한일현(07학번)이 함께한 ‘돼지국밥’ 팀이 12월 16일(월) SK E&S가 주최한 “에너지기술 전략,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50여개 아이디어 중에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SK E&S 관계자, 심사위원, 수상자를 포함 15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타 수상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거머쥔 ‘돼지국밥’ 팀의 주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중고선박을 활용한 터미널사업’ 아이디어였다. 팀의 참신하면서도 현실적인 아이템은 심사위원과 SK E&S 관계자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50개의 수상 팀 가운데는 굴지의 명문대학교와 해외대학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어노문학과 학생이 그들과 경쟁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은 노문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 비교적 정보순환이 빠른 서울 소재 대학

노어노문학과 김세환(08학번), 한일현(07학번)이 함께한 ‘돼지국밥’ 팀이 12월 16일(월) SK E&S가 주최한 “에너지기술 전략,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50여개 아이디어 중에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SK E&S 관계자, 심사위원, 수상자를 포함 15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타 수상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거머쥔 ‘돼지국밥’ 팀의 주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중고선박을 활용한 터미널사업’ 아이디어였다. 팀의 참신하면서도 현실적인 아이템은 심사위원과 SK E&S 관계자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50개의 수상 팀 가운데는 굴지의 명문대학교와 해외대학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어노문학과 학생이 그들과 경쟁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은 노문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 비교적 정보순환이 빠른 서울 소재 대학

이나 해외대학의 학생들과 비교해도 노문인의 능력이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현 재학생들은 물론, 앞으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예비 노문인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다.

한문학과



한문학과에서는 11월 22일(금) “동아시아 고전으로 미래를 기획하다”라는 주제로 제2회 취업특강을 개최하였다. 본 특강은 한문학과에 입학하여 한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문고전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생활을 계획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열렸다. 제2회 취업특강은 “한문교사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2014년 1월에 개최되었다.



11월~12월 중에는 총 3회에 걸친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마음을 치유하다”라는 인문의학세미나가 열렸다. 본 세미나를 통해 전통의학과 한문학이 만나는 접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었다.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는 12월 7일(토) 취업특강 및 동문회를 개최하였다. 오초롱(언어치료대학원), 박정훈(코오롱인더스트리[주]), 이영재(부산은행), 이석준(선거관리위원회), 오형국(삼성화재) 졸업생이 특강을 했는데, 학부생들로서는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취업특강과 동문회를 겸하여 선후배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학과

사학과는 10월 25(금)~26일(토) 한국서양사학회 주관, 부산대학교 후원의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를 주관하였다. 이번 학회는 “역사속의 소수자—공존과 배려를 위해”라는 주제로 우리 삶 속에서 소외된 ‘소수자’에 대해 조명하였다. 11월 29일(금) “2014학년도 사학과 취업특강”이 있었는데, 이번 특강에서는 설인철(04학번/삼성SD), 이현석(05학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동완(08학번/올레KT) 졸업생이 강연을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취업성공전략과 함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취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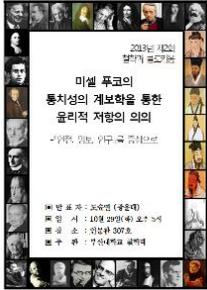


대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로부터 근간의 취업현황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질의응답을 통해 취업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의 고민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

학과/연구소 소식

간이 되었다. 11월 30일(토) 상남국제회관 웅비홀에서 사학과 총동문회가 열렸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선후배들이 총동문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 옛 추억을 떠올리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선후배 사이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철학과



철학과는 10월 29일(화)과 12월 3일(화), 제2회 및 3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제2회 콜로키움에서는 광운대 도승연 선생이 「미셀 푸코의 통치성의 계보학을 통한 윤리적 저항의 의미」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미셀 푸코의 저서 『안정, 영도, 인구』를 소재로 한 이 콜로키움에서 발표자는 푸코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리를 통한 작동”이라는 현대 권력의 작동 방식을 역설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윤리적 저항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 제3회 콜로키움은 「장자에서 선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는데, 발표자인 구미숙 선생은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장자 철학의 영향을 받은 면이 있으며, 이는 일상의 초월성을 발견하는 데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후 각각의 토론 시간을 통해 통치성과 저항, 장자와 선불교의 형이상학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고학과



고고학과의 취업특강이 12월 6일(금) 실시되었다. 고고학과는 취업특강을 위해 고고학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선배 2인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각도의 취업관련 마인드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인문학담론모임이 「돈과 영혼: 인간 삶과 문학의 심층에 철학적 측면을 던지다」(김덕영, 독일 카셀대학교), 「G, 아감벤의 정치철학」(김상운, 자유번역가, '현대정치철학연구회' 회원), 「니체: 힘의 의지의 관계론, 그 실천 철학적 함축」(백승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이라는 주제로 10월~12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씩 마련되었다. 같은 기간 본 연구소의 연속기획특강도 「세상을 만난 상고마: 남아공 줄루섬술지식(divining knowledge)의 혼성(creolization)현상」(장용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교수,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조선 후기 양심(良心) 개념의 도입과 천주교」(조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년대 한국문학 연구의 새 방향」(천정환, 성균관대학교)의 제하에 한 차례씩 실시되었다. 10월 28일(월)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와 공동으로 주선한 「동서양 인문학 산책」의 제목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 『오딧세이아』」(이효석, 인문학연구소)였다. 한편, 10월에서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부산 소년원특강이 있었는데, 특강은 「삶을 아름답게 여는 지혜」(김인택, 언어정보학과, 인문학연구소), 「호밀밭의 파수꾼과 인생의 보호자」(이효석, 인문학연구소), 「화해와 모성」(김성환, 인문학연구소), 「애니메이션과 인문학」(하상복, 인문학연구소(수)),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일」(김정현, 인문학연구소)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다. 10월~11월에 걸쳐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마련한 “변두리 인문학”은 「한국 문학의 중심과 변두리, 그 경계를 넘다」(김성환, 인문학연구소), 「기호의 변두리들, 언어의 변두리성」(서민정, 인문학연구소), 「변두리 텍스트, 광고로 읽는 프랑스」(이은령, 인문학연구소)라는 주제를 소개했고, 동구 쪽방상담소와 공동으로 연 “희망의 인문학”은 「내가 쓰는 나의 이야기 1, 2, 3」(서민정, 인문학연구소), 「우화로 철학하기 1, 2, 3」(김동규, 철학과)이라는 제하에 11월과 12월에 걸쳐 각각 세 차례씩 열렸다.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한 “길 위의 인문학” 행사를 밀양지역의 하남도서관, 밀양시립도서관과 함께 진행하였다.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인문고전독서 분위기 진작과 밀양지역 인문학에 대한 재조명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진행된 이 행사는 도서관별로 강연과 답사를 병행함으로써 주제가 되는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밀양하남도서관은 「밀양의 정신문화를 일군 세 인물의 삶과 발자취」라는 주제로 점필재, 김종직, 사명당에 대한 3회의 강연과 답사를 실시했으며, 밀양시립도서관은 「길을 따라 옛사람을 찾다: 선비의 길, 화해의 길, 은거의 길」이라는 주제로 영남대로를 따라 조선 통신사의 길, 선비정신의 실천, 선비정신의 원류에 대한 강연과 답사를 진행하였다. 각 도서관 행사에 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참여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의 지적·문화적 기반을 활용한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10월 16일(수)과 12월 4일(수) 각각 「다문화와 인정의 로컬리티」와 「역사적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협동연구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문헌정보학과, 한국도서관협회, 부울경 지구협의회와 공동주최로 「한국학 사서가 바라보는 미국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학술행사와 목포대도서관문화연구원,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한국해양대국제해양문제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섬과 바다 그리고 海港都市-공간인식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제하의 동아시아 해양도시 국제학술회의도 10월과 11월 하순에 각각 개최했다. 교내 타 연구소와 함께 시민아카데미 “변두리 인문학”도 계속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과 함께하는 시민강좌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도 10월~11월 중 10강좌가 열렸다. 10월 25일(금)에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공동주최하는 시민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역사·문화 답사(“옛길을 걷다”)를 마련하기도 했다.

사학과 총동문회개최



2013년 11월 30일(토) 상남국제회관내 웅비홀에서 사학과 총동문회가 열렸다. 사학과 동문인 김기섭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60주년 행사 결과보고, 감사패 전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신입 사학과동문회장으로 강대민(72학번, 현 경성대 사학과 교수)동문이 선출되었고, 동문회 회칙 검토 및 향후 동문회 발전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사학과의 발전을 위한 소정의 동문기부금 전달도 있었다.

| **이병진** 동문(불어불문 82)이 2014년 1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대변인으로 승진하였다.



| **홍창표** 동문(중어중문 86)이 지난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사업단장에 보임하였다.

| 우리 대학 **김다운** 학생(영어영문 06학번)이 2013년도 행정고시에 최종합격하였다.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행정고시 최종합격자는 272명이었으며, 이 중 부산대 출신은 6명이었다.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국외파견

- 박형섭(불어불문학과) | 프랑스 끌레주드프랑스, 1년(2013.3.1~)
- 권순복(언어학과) | 미국 메인대학교, 1년(2013.3.3~)
- 최덕경(사학과) | 중국 북경대학교, 1년(2013.8.20~)
- 임상택(고고학과) | 미국 오리건대학교, 1년(2013.1.21~)

연구년 B

- 한태문(국어국문학과) | 일본 광도대학, 1년(2013.4.1~)
- 서정희(중어중문학과) | 1년(2013.3.1~)
- 김옥영(일어일문학과) | 1년(2013.3.1~)
- 이준규(한문학과) | 1년(2013.9.1~)
- 채상식(사학과) | 1년(2013.3.1~)
- 박준건(철학과) | 1년(2013.3.1~)

교수동정단신

| **조태홍** 교수(국어국문학과)는 11월 15일(금)~18일(월) 중한문화교류사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차 중국에 다녀왔다.

| **김혜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10월 24일(목)~28일(월) 홍콩에서 열린 제10회 동아시아학자 현대중문문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였다. 김 교수는 또한 12월 17일(화)~21일(토) 화어문학의 상상의 공동체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대만에 다녀왔다.

| **남덕현** 교수(중어중문학과)는 12월 10일(화)~12일(목) 중국 하남대학교 및 하남성 소재 주요 대학 방문하여 국제협력 및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 **김임숙·김창규·류민화·오경환·조강희** 교수(일어일문학과)는 12월 16일(월)~17일(화)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세미나(답사) 및 일어일문학회 참가를 위해 일본 대마도에 다녀왔다.

| **김성진** 교수(한문학과)는 10월 5일(토)~7일(월) 일본에서 열린 제64회 조선학회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 **이중봉** 교수(사학과)는 10월 21일(월)~25일(금) 제17기 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연길 조양소학교 및 조선문독서사에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 **신경철** 교수(고고학과)는 11월 15일(금)~19일(화) 후쿠오카대학 武末純一교수의 삼국시대(고분시대) 한일공동연구 제안을 받아 일본에 다녀왔다.

신간소개

고려 후기 한문학과 지식인

『고려 후기 한문학과 지식인』

김승룡 지음, 지식은만드는지식, 2013

김승룡

『고려 후기 한문학과 지식인』은 한문학과 김승룡 교수가 처음 논문을 시작한 즈음부터 지금까지 쓰고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고려시대를 읽는 시각의 모색>이란 제목 아래 아홉 편의 글을 담아 놓았다. 각각 가문·국가·민족·인문·고전·경계·여성·가난·미학 등 고려를

읽을 수 있는 시각을 모색한 궤적들이다. 여기에는 고려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결을 보여 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제2부 <연구사적 성찰과 방법적 원간섭기>에는 고려 후기 지식인들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논의의 거점으로 '원간섭기'를 추출한 뒤, 이 시기에 활동한 인물들, 즉 이장용, 이승휴, 천책과 백련결사 참여자들, 청주 객시 등의 문학세계를 조망한 글을 담았다. 제부에서 수행한 모색의 귀결처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저러한 시각을 모색한 결과 고려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거점을 찾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고려 후기 한문학을 읽었던 독법, 즉 신흥시대부 담론을 다시 조망하였다.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강명관 지음, 천년의상상, 2014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가 펴낸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는 우리 선인들이 남긴 조선의 책으로 독서 문화사를 짚어본다. 책이 발명된 이후 사람들은 책을 만들고, 또 읽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우리의 직계 선조인 조선의 지식인들 역시 서구의 지성사에 뒤지지 않는 책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있었지만, '책과 독서의 역사'를 다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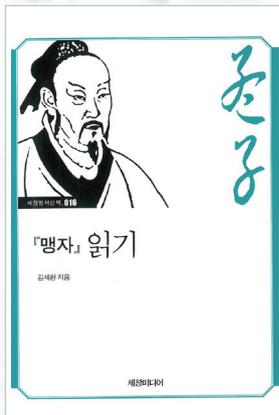
기존의 책들은 대부분 서양 연구자의 몫이었다. 이들의 책을 읽을 때마다 부러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는 저자 강명관은 선조들이 남긴 조선의 책으로 책과 지식의 역사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각종 문집과 일기류, 서지학 자료 등을 속속들이 추적하며 조선의 책이 조선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고, 어떤 문화를 발명해왔는지 살펴보았다. 가령, 조선시대 책의 인쇄와 유통 양상은 어떠했는지, 책값은 지식의 확산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중요한 서적의 탄생과 소멸은 어떠했는지 등 책과 지식생산의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망라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읽어낸다.

『맹자』 읽기

김세환 지음, 서울: 세창미디어, 2013.11

중어중문학과 김세환 교수의 '『맹자』 읽기'는 독자가 『맹자』를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이 책은 『맹자』에 나타난 사상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저자가 직접 맹자의 묘지를 찾으면서 맹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제1장과 제2장은 '맹모삼천', '맹모단기', '맹자휴처', '삼종지도' 등과 같은 맹모 교육의 고사, 맹자의 생애와 『맹자』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제3장은 현대사회의 삶과 접목하여 맹자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최대의 고민을 '仁'에 거주하면 아주 넓은 집만큼이나 자유롭고, '禮'에 맞추어 행동하면 모든 행위가 떳떳하며, '義'의 길만을 가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바로 대장부의 삶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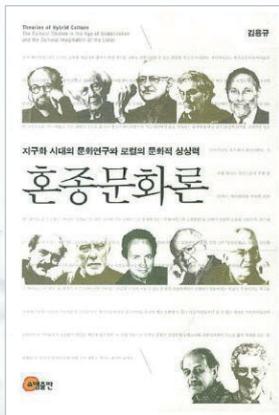


애와 『맹자』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제3장은 현대사회의 삶과 접목하여 맹자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최대의 고민을 '仁'에 거주하면 아주 넓은 집만큼이나 자유롭고, '禮'에 맞추어 행동하면 모든 행위가 떳떳하며, '義'의 길만을 가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바로 대장부의 삶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혼종문화론』

김용규 지음, 서울: 소명출판, 2013

지구화의 시대 문화는 국민국가의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문화들과 만나고 뒤섞이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민족문화의 경험과 정체성을 탐구해온 근대적 문화연구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문화들 간의 횡단과 혼종이 벌어지는 초국적 경계지대들의 문화현상을 연구하는 새로운 탈근대적 문화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



되고 있다. 이 전환에서는 기존의 문화 개념은 유동적인 것으로 변한다. 자기충족적이고 독립적이며 본질주의적 문화 개념은 뒤로 밀려나고, 자기개방적이고 유동적이며 구성적인 문화 개념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된다. 이런 현실을 다루기 위한 문화적 횡단과 혼종의 경계지대가 문화연구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다. 영어영문학과 김용규 교수가 출간한 『혼종문화론』은 이런 문화현상들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 책은 포스트식민적 시각, 로컬적 생태학, 남부의 인식론 등과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지구화 시대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문화들에 주목하는 혼종성과 문화횡단의 문화이론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우리 현실과 연결하여 고찰하고 있다.